2025

Vol. 129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

3·4 월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Mapping a better future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한국한센총연합회 소개

한국한센총연합회는
1969년 10월 13일 발족되어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핵심가치

HARMONY — 한센가족과 HARMONY 국민 모두의 소통을 통한 **편견 해소**
HOPE — 한센가족의 사회통합과 재활에 대한 **소망 실현**
HAPPINESS — 전 세계 한센가족의 인권과 **복지 증진**

비전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 차별과 편견이 없는 행복사회 실현
— 한센사업의 역할 모델로 위상 제고

미션

— 한센인의 보건 복지 증진
— 한센인의 권익 보호 강화
— 한센인의 사회 통합 지원
— 한센인의 인권 신장 확대

사업목표

— 한센인 관련 법, 제도 등의 개정 및 제정
— 한센인의 보건복지 등 삶의 질 향상
— 한센 관련 단체와 연대 강화
— 한센인(병)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 한센인 권익 증진
— 한센인 사회 통합 지원
— 미래지향적인 한센정책 수립
— 국제 교류 협력 확대
—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한센 관련 정책을 통한 주도적 위상 제고

사업소개

-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
- 한센인 **복지사업**
- 한센인 **인권증진 사업**
- **기획·홍보** 사업

Mapping a better future...
한국한센총연합회
THE KOREAN FEDERATION of HANSEN ASSOCIATIONS

한센가족(hansen)을 상징하는 'h'로 한센가족과 국민 모두가 눈높이를 맞춰 소통으로 하나되고 대한민국 한센사업의 통합과 한센가족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 실현을 위한 열정을 형상화함

총연합회 공식 SNS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CONTENTS

한센포커스

02 인사말
- 한센인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새로운 도약

04 스페셜 리포트
- 정기대의원총회 및 임원선거

06 한센 리포트
- 선거관리위원회
- 2025년 사업보고회의
- 한센인 고충 민원 현안 사항 협의
- 치매예방교육
-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 찾아가는 문화복지
- 한센인 독거노인 돌봄
- 일반국민 인식조사
- 대중매체 모니터링
- 국립소록도병원의 기능 개선 방안 도출 및 발전 방안 모색
- 경북 영덕 산불 피해현장 신애마을 방문
- 2025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 배포
- 제22회 한센인의 날 개최 예정
- 2025년 한국한센총연합회 추진 사업
-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한센탐방

34 지부는 지금
- 울산·경남지부

35 관계단체동정
- 한국한센복지협회
- 한국IDEA협회

38 에버그린 사회복지센터

한센공감

40 함께하는 한센
- 녹슬지 않는 첫사랑의 추억_박우택(서울·중부지부장)
- 한센인의 눈물 어린 발자취길, 거기서 만난 사람들_오문수

한센이모저모

50 정보알리미
- 당뇨와 비만, 감수치료로 관리합니다
- 당뇨와 '헤어질 결심'
- 요즘이책

60 독자들의 공간
- 치매 예방 학습자료
- 한센게시판
-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제23권 제2호 통권 제129호 **발행일** 2025년 3·4월호 **발행인** 이길용 **편집인** 우홍선 **발행처** 한국한센총연합회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전화 1566-2339 **팩스** 1566-2032 **홈페이지** www.hansenkorea.org
이메일 hansen@hansenkorea.org **디자인&인쇄** 디자인앰퍼샌드 격월간 비매품
※「한센」은 일반회계(국고지원)의 지원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한센인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새로운 도약



사랑하는 한센 회원 여러분!

따스한 햇살이 만물을 깨우는 희망찬 새봄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긴 겨울을 지나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처럼, 우리 한센인 사회에도 새로운 희망과 변화가 싹트길 바랍니다.

우리 총연합회 주요 사업으로 △한센인 평생교육 사업(치매예방교육,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한센인 복지 사업(찾아가는 문화복지, 한센인 합동결혼식,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한센인 독거노인 돌봄), △기획·홍보 사업(전국 한센인의 날,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 대중매체 모니터링, 홍보매체 운영, 한센인 구술 기록화)이 있으며, 특히 2025년부터 한센인 구술 기록화 사업을 통해 한센병으로 인한 어려움과 차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일구어오신 한센인분들의 소중한 생애사를 채록하고 이를 책으로 제작하여 역사적 자료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3월, 삼청마을에서는 노인성 질환으로 대표적인 치매를 예방하고자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한센 어르신들에게 풍성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한센인이 이동 보조 수단으로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어 한센인분들의 안전을 위해 4월부터 도성마을, 득성마을, 호혜마을에서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합니다.

더불어, 따뜻한 봄날 희망마을에서는 겨우내 움츠렸던 정착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복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총연합회는 한센인 고령화에 맞춘 복지 증진과 인권신장, 그리고 정착마을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복지부 등 유관 부처 및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한센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5월 15일, 소록도에서 '제22회 한센인의 날'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따뜻한 연대를 나눌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뜻깊은 날,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우리의 이야기를 더욱 깊이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록도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뵐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센 회원 여러분!

지난 3월 22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우리 대구·경북지부 신애마을과 여러 정착마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부족한 저를 다시 제22대 회장으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맡겨주시니 무거운 책임을 깊이 새기며, 한센인 여러분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더욱 헌신하고 노력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특히, 한센인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여 한센인들이 더욱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세 권익 보호, 정착마을 광역화,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한센인 복지와 인권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나 그때의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센 가족 여러분이 필요로 하시는 곳이라면 언제든 달려가 해결사가 되었듯이, 앞으로도 한센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 **이 길 용**

2025 정기대의원총회 및 임원선거



▲정기 대의원총회

3월 31일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총연합회 임직원과 전국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대의원총회 및 임원선거가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 대의원총회는 이길용 회장의 개회 선언과 성원보고를 시작으로 ▲감사보고 ▲2024년도 사업보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임원선거 ▲기타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임원선거는 정관 제17조(의결사항) 및 제22조(임기)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사 ▲경과보고 ▲부의안건 상정 순으로 이어졌다.

구분	성명	소속
회장	이길용	한국한센총연합회
이사	박행남	서울·중부
	김종열	부산
	어경윤	인천
	박정수	경기
	박형남	전북
	정천근	전북

구분	성명	소속
이사	김영근	광주·전남
	최이만	대구·경북
	홍완근	대구·경북
	정서기	울산·경남
	최정기	울산·경남
감사	김용	전북
	최종현	서울·중부

임원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이길용 총연합회장이 추대되어 제22대 회장에 연임되었으며, 이사 11명과 감사 2명이 함께 선출되었다.

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감사의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다.

연임이 확정된 이길용 회장은 “이번 연임은 권한을 누리는 자리가 아닌, 더욱 낮은 자세로 섬김을 실천하겠다.”라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한센총연합회 이길용 회장 주요 약력

- 성생마을 대표
- 前 한성협동회 경기지부 부지부장
- 前 2010 세계한센포럼 공동조직위원장(2010년 7월~11월)
- 前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위원(2009년 3월~2013년 7월)
- 前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 위원(2017년 11월~2023년)
- 한센복지협회 이사(2009년 8월~)
- 한국무궁화사랑운동본부 상임고문(2013년 8월~)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사(2010년 9월~)

2025 선거관리위원회

총연합회는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5차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정상권 고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박행남 이사, 안영칠 대구·경북지부장, 우홍선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김정아 부장을 간사로 지명하여 총 5인의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위원회는 선거관리 규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법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한 절차도 충실히 이행하였다.

1차 회의는 2월 28일에 개최되어, 임원 선거 관리 규정을 재확인하고, 선거 일정, 선거인 명부의 자격 요건, 후보자 등록 절차, 임직원의 선거관리 개입 금지 등과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2차 회의는 3월 13일에 열려,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유하고 선거운동의 범위, 홍보물 배포 시기, 선거 기간 중 현 회장의 직무 정지 등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선거 운동은 이사만 허용하며, 홍보물 등은 후보자 등록 이후에만 발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선거 기간 동안 현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의결하였다.

3차 회의는 3월 18일에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는 각 지부에서 접수된 입후보자 등록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특히 일부 지부의 일정 조정 요청에 따라 위원회는 이사 후보 등록 서류 제출 기한을 3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다.

4차 회의는 3월 20일에 열렸으며, 지부 이사 후보 추천이 모두 완료되었고, 회장 입후보자 1명, 이사 11명, 감사 2명의 임원 후보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5차 회의는 총회 당일인 3월 31일 개최되었으며, 4차 회의 이후 논의 된 사항들을 최종 점검하고, 확정된 임원 후보들의 서류를 재검토하여 누락 여부를 세밀히 확인하였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지명직 이사 삭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원회는 마지막까지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였으며,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와 철저한 검토 과정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2025년 사업보고회 회의



우리 총연합회는 지난 3월 11일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2025년 사업보고회에 참석하였다. 동 보고회는 국가한센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가한센병사업을 수행하는 4개기관(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한센복지협회, 가톨릭한센병연구소,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이 참여하였다.

각 기관별로 2024년 사업 실적 및 2025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수행기관 간 의견 교류를 통해 효율적인 한센사업 수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한센사업의 발전 방향과 한센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른 정부 예산 축소에 대한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우리 총연합회는 질병관리청 및 국가한센사업 수행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복지 증진 사업과 편견해소를 통한 인권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센인 고충 민원 현안 사항 협의

우리 총연합회는 지난 4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실에서 한센 고충민원 담당자와 한센 관련 고충민원 현안 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번 협의는 지난 1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진행한 간담회 이후, 전국 정착마을의 고충 실태조사(5개 지부, 16개 정착마을, 22개 고충 민원)를 통해 열악한 환경 개선과 한센인의 대한 편견·차별 해소 등 개선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한센인 2세 피해보상, 정착마을 광역화,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의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른 증액이 포함된 한센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입법 권고를 요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앞서 총연합회는 2021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와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마을 환경·복지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정착마을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한센 민원과 관련된 정부 부처 및 시군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정착마을의 폐축사 등 정비사업 추진, 세제 지원 등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더불어 4월 11일에는 총연합회를 비롯해 장자마을 관계자, 국민권익위원회, 포천시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포천 장자마을(대표 최종국)을 방문해 폐수처리시설 용지 매입 관련 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시설은 현재 미사용 중이며, 부지와 구조물이 일반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장자마을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채와 매월 이자 부담이 있는 가운데, 포천시가 해당 부지 매입을 요청하였고, 총연합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동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한센인 2세 피해와 관련된 실태 조사, 한센특별법 개정, 고충민원에 대한 정부 부처와의 협의 등 한센인의 복지증진과 인권신장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신청 현황표

2025. 3. 19. 접수 기준

연번	지부	마을명	고충 민원	비고
1	서울·중부지부	대명마을 염윤열	원주대명마을 소유 토지의 지방세(재산세) 부과 관련	원주시청
2		성광마을 민병근	천주교 땅 개인 불하 및 무허가 축사 폐업 보상 관련	충청남도청
3		영락마을 신재문	정착마을 소유 토지세 부과 관련	서산시청
4		청원마을 장경선	청원마을 토지를 마을 한센인에게 개인 등기 등재 요청	-
5		충광마을 최종현	빈 축사를 시에서 매입	세종시청
6		헌인새마을추진위원회 서충관	헌인 마을 실시 계획 인가 변경 요청 (1종지를 2종지로 변경)	서울시청
7	경기지부	염광마을 최연규	마을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용인시청 수지구청
8		상록마을 이상봉	주거급여 특례 관련	양평군청
9		상록마을 이상봉	마을 토지 양성화 관련	양평군청
10		천성마을 김매수	개발제한 구역 해제 요청	양주시청
11		장자마을 최종국	장자일반산업단지내 폐수처리시설 용지 매입 요청	포천시청
12	인천지부	부평마을 권태우	부평마을 재개발 협조	인천시청
13		부평마을 권태우	한센인 소유 토지에 대한 지방세(토지세) 부과 관련	남동구청 부평구청
14		청천마을 한춘식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에 대한 질의	부평구청
15		청천마을 한춘식	한센인 소유 토지에 대한 지방세(토지세) 부과 관련	부평구청
16		청천마을 한춘식	한센인 정착마을 재개발 협조	인천시청
17		청천마을 한춘식	한센인 2세 보상 관련	정부
18	전북지부	금오마을 정천근	한센 가족 피해 보상 소송 사망자 관련	-
19	대구·경북지부	신락마을 김창렬	한센인 정착마을 안길 이전 등기	의성군청
20		칠곡마을 홍완근	칠곡마을 지목변경	칠곡군청
21		희망마을 강완주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면제 요청	한국자산 관리공사
22		희망마을 강완주	한센인 폐축사 슬레이트 철거 사업	경주시청

뇌와 신체 건강 지키는 치매예방교육

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지능력을 향상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맞춤형 치매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한센인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뇌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여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통합적인 교육으로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효과를 높이고, 생활 속 치매 예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3월 21일부터 삼청마을(대표 채용태)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예방교육은 15회기 과정으로 매주 어르신들의 인지능력을 측정하여 뇌 건강을 향상하고, 인지 체조를 통해 신체 건강을 증진하면서 삶의 활력소를 주고 있어 삼청마을 한센인들에게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마을 대표는 “총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치매예방교육에 삼청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기쁘고, 몸이 불편한 분도 교육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의 남은 교육도 기대가 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삼청마을 치매예방교육





한센인의 행복한 외출을 위한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총연합회는 4월부터 9월까지 정착마을 한센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추진하는 정착마을은 3개 마을이며, 4월 10일 도성마을(대표 강수웅)을 시작으로 득성마을(대표 김영애)과 호혜마을(대표 윤재갑)에서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센인은 한센병으로 인한 상흔과 고령으로 인해 이동권의 불편함이 있어, 이동 보조 수단인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인원이 증가하여 정착마을 한센인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교육내용으로 전동보장구의 종류, 사고 유형, 올바른 취급 방법,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다루고, 한센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의 안전 점검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한센인에게 전동스쿠터는 발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을 통해 전동차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고, 교통법규와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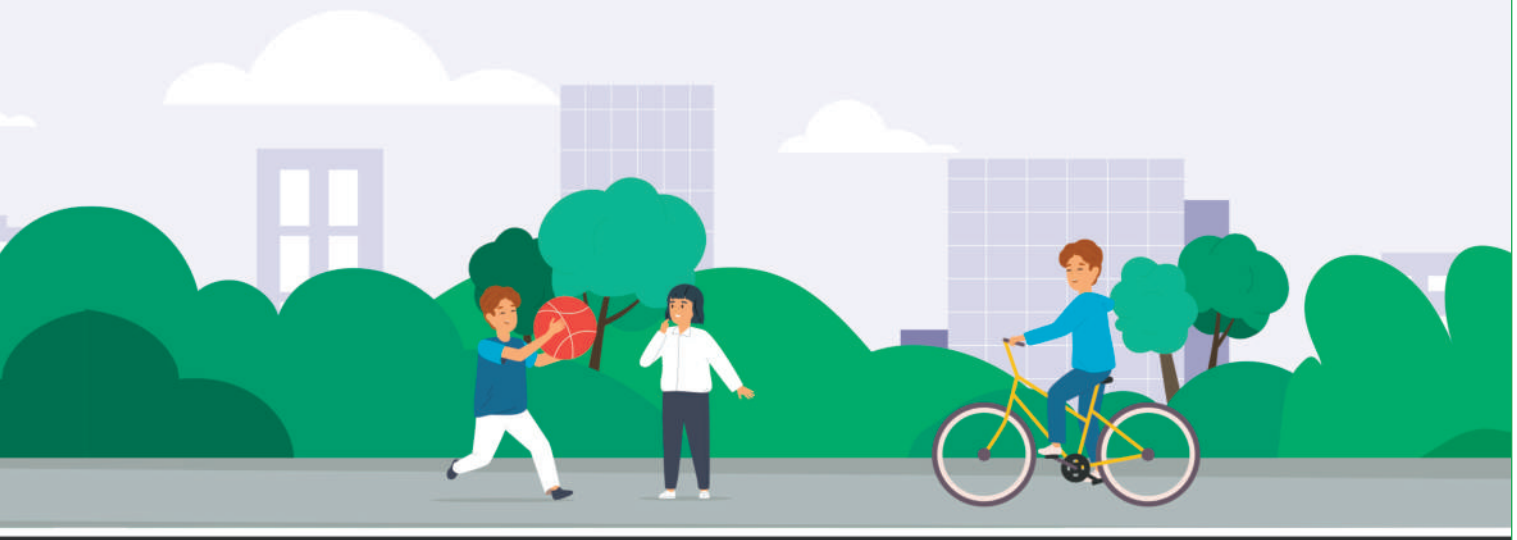
⦿ 도성마을 전동보장구 안전관리교육











싱그러운 햇살처럼 따뜻한 날에 진행된 찾아가는 문화복지 사업



우리 총연합회에서는 4월 8일, 희망마을(대표 강완주)에서 '찾아가는 문화복지 사업'을 실시했다.

본 사업은 총연합회가 매년 전국의 정착마을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장애 및 고령화로 외출 등이 제한되거나 지리적 특성상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는 한센인 정착마을에 직접 찾아가 문화공연을 펼치는 사업으로, 비한센인과의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한센인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희망마을에서 펼쳐진 공연은 품바공연과 마술공연으로 한센가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공연들이 펼쳐져 정착마을에서 제한된 생활을 하는 한센 가족들이 모처럼 즐겁게 공연을 즐겼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찾아가는 문화복지 사업을 통해 정착마을 한센인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과 웃음 및 행복을 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한센인 정착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 정착마을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희망마을 찾아가는 문화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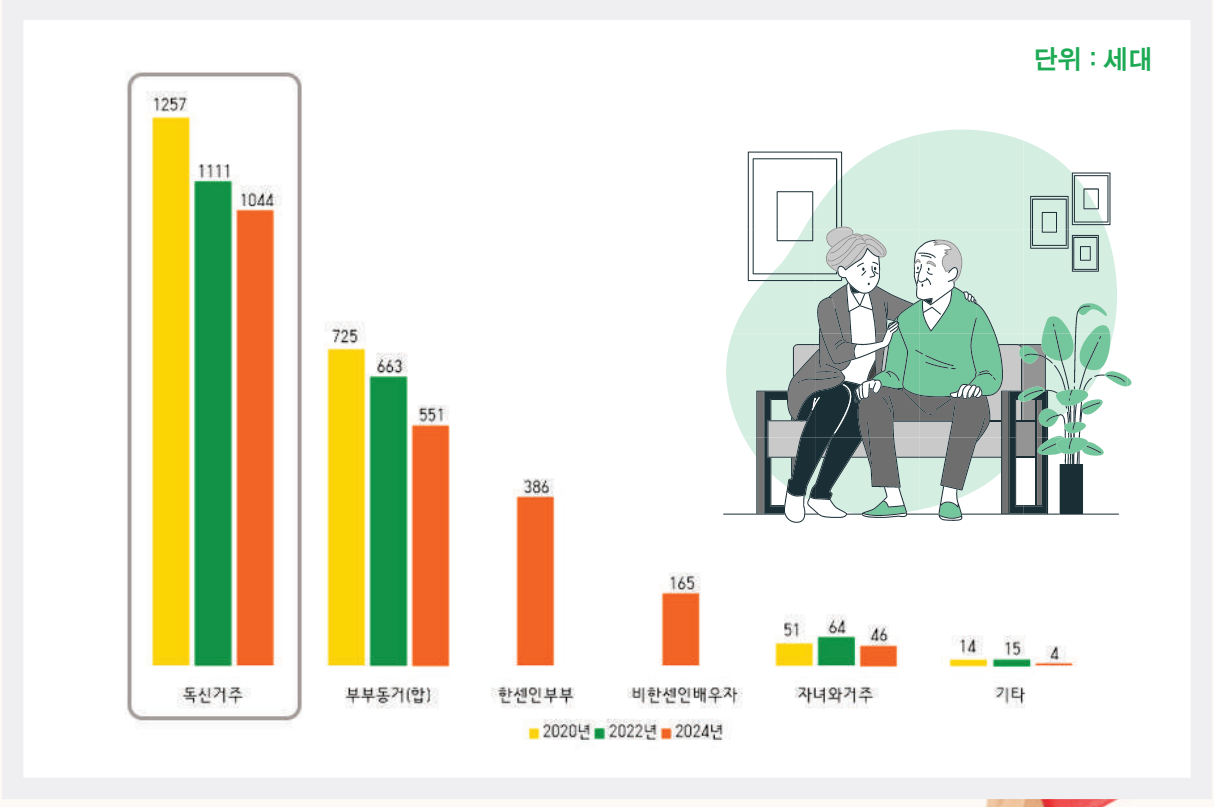




정서적 지원을 위한 따뜻한 연결
한센인 독거노인 돌봄

고령 한센인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센인 독거노인 돌봄 사업'이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다.

이 사업은 65세이상 한센인 독신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화 상담을 통해 건강과 생활환경을 점검하고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 한센인 세대 거주형태 분포

총연합회의 '2024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착마을 거주 한센인의 95.5%가 66세 이상의 고령층이며, 특히 '81세 이상' 연령대가 49.2%(97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독신 거주 비율이 63.5%(1,044세대)로 높아, 돌봄이 부족한 독거 한센인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독거 한센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돌봄 지원 사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65세 이상 독거 한센인 60명을 선정하여 월 1회씩 총 8회의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확인하고,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생활사 및 건강 변화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기록할 예정이다. 또한 상담을 통해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을 연계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돌봄 사업을 통해 한센인들의 숨겨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여 위기 극복 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소외감과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한센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개발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한센인 독거노인 돌봄 사업을 통해 고령 한센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이 한센인들의 정신적 만족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년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



우리 총연합회는 4월부터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7월 중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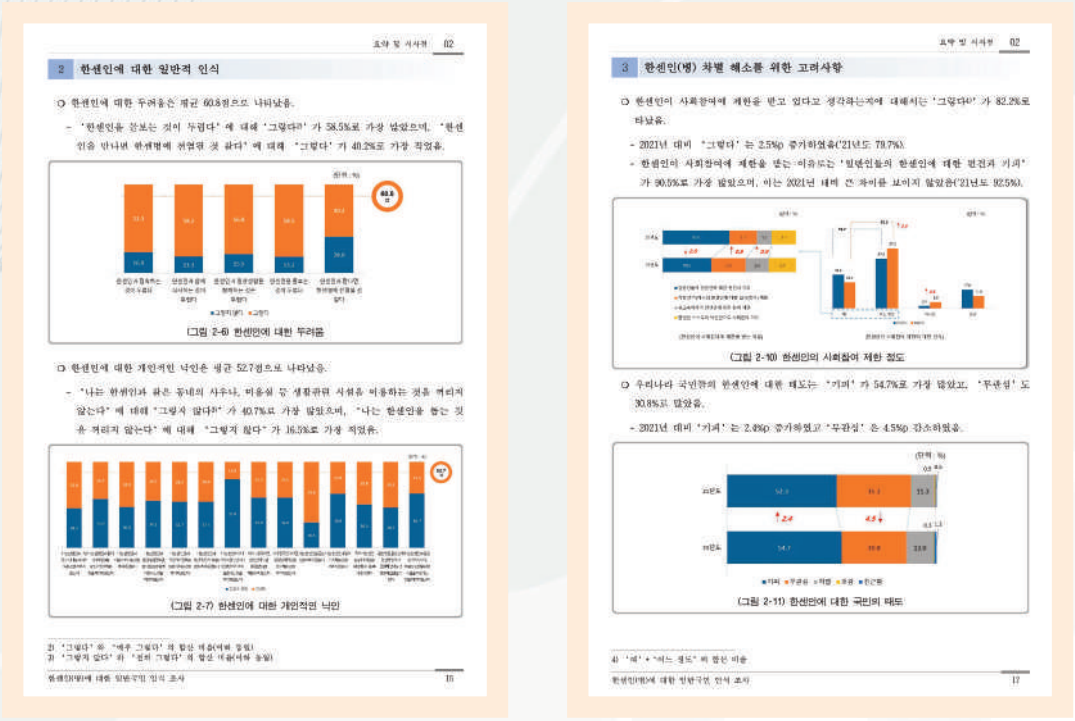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는 국민들이 한센병과 한센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이해도를 파악하고, 향후 효과적인 홍보 정책과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사에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반영한 일반 국민 600명이 참여하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한센인(병)에 대한 인지 및 이해 정도 ▲한센인(병) 차별 해소를 위한 고려 사항 ▲한센인(병) 정보 습득 및 홍보 ▲정착마을에 대한 기본 인식 ▲한센인 피해사건 관련 특별법과 가족 지원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된다.

총연합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분석하고, 시기별 비교가 가능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홍보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한센인 관련 법안이 제정될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연합회는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홍보와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 총연합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센인(병) 관련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미래 한센병 정책 및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2023 한센인(병)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 내용

대중매체의 올바른 용어 사용을 위한 총연합회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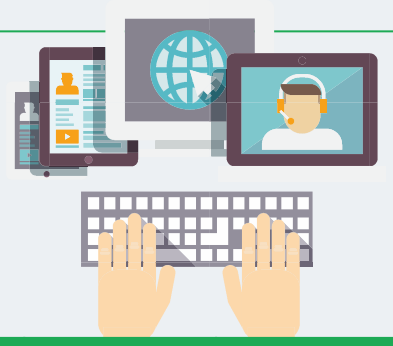
우리 총연합회는 일부 대중매체에서 여전히 부적절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차별적 표현이 포함된 언론보도를 분석하고, 정정 요청을 통해 올바른 용어 사용을 확산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한센병은 나균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으로, 면역 기능이 극히 약한 경우에만 발병한다. 하지만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후유증 없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중매체에서 여전히 '나병(이 용어에는 편견과 차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학술적 분야에서만 사용하고 있음)' 또는 '문둥병'과 같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총연합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 보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기사나 방송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한센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한센병사업 관리지침' 관련 용어에 따르면, WHO를 비롯한 한국·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는 Leprosy와 Hansen's Disease를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용어 순화를 위해 Hansen's Diseas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용어로 사용할 때는 한국·일본·미국은 한센병(Hansen's Disease: HD)으로 표현하며, 중국은 마풍(麻風), 독일은 아우샛쯔(Aussätzigen), 아랍국가는 조삼(ZOSSAM), 인도네시아는 패니키트구스타(Penikit-kusta)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길용 총연합회장은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온 한센인들에게 올바른 명칭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언론과 방송이 앞장서서 차별 없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 대중매체 모니터링 현황

수정 일시	언론사명	기사 제목	수정 전 단어	수정 후 단어
2월	경남신문	창녕부곡온천 '관광객 300만명 시대' 옛 영광 찾는다	나병	한센병
	경북매일	반쪼가리 자작과 아령 사회	문둥병	
	리얼캐스트 외 6곳	NH농협은행 IT사랑봉사단, 초등학교 입학기 맞아 학용품 지원 실시	나병	
	한국기독공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문둥병	
3월	데일리굿뉴스	2025년 3월 세직선 성령기도회	나병	
	크리스천투데이	사순절, "날마다 죽노라"는 마음으로 나라 위해 기도할 때	문둥병자	한센인
	한국기독공보	죄로 말미암아	문둥병	한센병
	한의신문	사독약침의 기원과 효능		

총연합회의 이러한 노력은 한센인들의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중매체가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편견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한센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센인의 영원한 고향, 국립소록도병원의 새로운 역할 찾기



국립소록도병원은 국내 유일의 국립 한센병 전문 치료·요양기관으로서 최근 '국립소록도병원의 기능 개선 방안 도출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마쳤다.

이번 연구를 위해 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에서는 지난해 한센인(병)에 대한 역사와 총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활동 사항 및 국가 한센 관리 체계 내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한센 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 전략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한센병 예방관리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 한센병 관리체계의 역할과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립소록도병원의 기능개선 및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중장기 로드맵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한센병 관리 체계 정비 및 한센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전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한센병 관리 및 지원체계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며, 한국한센총연합회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민간단체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1개 한센병 전문진료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착마을 한센인은 주로 지역 내 일반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13개 시·도에 총 81개(2023년 기준)의 한센인 정착마을이 있으며, 4개의 생활시설이 운영 중이나, 한센인 평균 연령이 80세를 넘어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국외 한센병 관리 및 지원체계를 비교한 결과, 일본은 전국적으로 한센병 요양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인도 등 일부 국가는 국가 단위의 한센병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일본과 인도는 국립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교육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체계도 분석되었다. 현재 국립소록도병원의 입원 환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환자의 평균 연령이 78.7세로 나타났다. 의료진 확보 및 운영 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병원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팀은 국립소록도병원의 기능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전문 의료 인력 확보, 외래진료 보강, 의료시설 집중화, 요양 병동 전환 등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력 구조 재편, 의료 및 돌봄 체계의 전환, 사회복귀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최종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 병동과 치료 병동의 단계적 폐쇄, 한센병 연구 및 국제 교류 강화, 한센병 기록물의 전산화 및 문화재 관리 기능 강화 등도 중장기 발전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총연합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립소록도병원의 기능 개선과 발전 방향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특히 한센인들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료 및 돌봄 체계의 개선이 절실한 만큼,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센인들이 안정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총연합회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립소록도병원은 단순한 치료시설이 아니라, 한센병의 역사와 한센인의 삶이 오롯이 남아 있는 공간이다. 한센병이 완전히 퇴치된 이후에도 그 의미가 사라지지 않도록,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고 인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경북 영덕 산불 피해현장 신애마을 방문



4월 7일,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상북도 영덕군의 신애마을(대표 김덕연)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신애마을은 한센인들이 오랜 세월 정착해 살아온 정착마을로, 이번 산불로 인해 주택과 농지 일부가 소실되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특히 고령의 한센인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 특성상 복구에 더 많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길용 회장은 이날 현장에서 안영칠 대구·경북지부장, 김덕연 대표를 비롯한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경청했다. 이어 실질적인 복구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금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더했다.

이길용 회장은 “신애마을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한센인들의 역사와 삶이 깃든 소중한 터전”이라며 “주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연합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에서 한센인 정착마을이 소외되지 않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2025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 배포



우리 총연합회는 지부를 대상으로 한센병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2025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을 배포했다.

이 지침서는 한센관계단체 및 관계자가 한센병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총 309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한센병사업 안내 ▲한센병환자관리지원 예산집행 안내 ▲한센병환자관리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센병 예방·관리 및 한센사업 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한국한센총연합회와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관계기관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센인의 건강과 복지 수준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매년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하고, 총연합회가 이를 각 지부에 배포해 오고 있다.

5월 15일, 우리의 하나된 목소리가 더 밝은 미래를 만든다! 제22회 한센인의 날 개최 예정



오는 5월 15일,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 '제22회 한센인의 날'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센인과 가족, 국민이 한데 모여 친목을 다지고 화합을 이루는 축제의 장이 될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유공자 포상 시상식, 전국한센가족 윷놀이, 전국한센가족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도 특별한 사진 촬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추억사진관'이 운영되며,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해 제공한다.

또한, '우리마을 행복사진관'에서는 한센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사진 촬영이 진행된다.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 의상 준비까지 전문가들의 손길이 닿아 특별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할 예정이다. 촬영된 사진은 행사 이후 액자로 제작되어 배송된다.

이번 행사는 한센인들의 역사를 기리고, 한센인의 삶을 존중하는 자리이자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은 "제22회 한센인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의 역사를 되새기고, 우리가 하나 되어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22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제109주년

일시 2025년 5월 15일(목) 10:00~

장소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

행사일정

1부

식전행사

2부

- 유공자 포상 시상식
- 기념사 · 대회사 · 축사 등

3부

- 전국한센가족 윷놀이
- 전국한센가족 노래자랑

▣ 추억사진관, 우리마을 행복사진관은
복합문화센터 **외부 광장에서 진행, 10시~14시까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제22회 한센인의 날, 한센사랑 축제 한마당

전국한센가족 윷놀이

일시 2025년 5월 15일 11:00 ~ 12:20

장소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

참가자 각 지부 별 2~3팀 참여(총 16개 팀)

시상내역 1등 - 30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선물
2등 - 25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선물
3등 - 20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선물
4등 - 15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선물



전국한센가족 노래자랑

일시 2025년 5월 15일 12:30 ~ 14:00

장소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

참가신청 각 지부 별 사전 접수 및 현장 접수
(한센가족 · 비한센인 · 연령 · 남/여 구분 없이 누구나 참가 가능)

시상내역 1위 - 20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선물
2위 - 15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선물
3위 - 10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선물
4위 - 5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선물





추억사진관

소록도에서의 추억을 사진을 담아드립니다.
행사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즉석 카메라를 통해 추억을 기록해 보세요

일시 2025년 5월 15일 10:00 ~ 14:00
장소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 외부 광장
내용 즉석 사진 인화 제공





우리마을 행복사진관

한센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장수 사진 촬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시 2025년 5월 15일 10:00 ~ 14:00
장소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 외부 광장
신청 시도지부를 통해 사전접수 및 일부 현장접수
내용 메이크업·헤어드라이, 의상(한복·양복)제공, 사진 촬영, 촬영 이미지 후보정, 액자 제작 등





2025년 한국한센총연합회 추진 사업

보건요원교육



전국 정착마을 보건요원을 대상으로, 정착마을 한센인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보건요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시기 상반기 예정

대상 전국 정착마을 보건요원

내용 동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축산경영교육



한센인 정착마을 축산 농가의 전염병 예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를 담은 교육

사업시기 상반기 예정

대상 전국 정착마을 보건요원

내용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협의 중

한센인 구술 기록화



한센인의 생애사를 구술 녹취 및 전사하여 기록화하고, 이를 통해 한센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며, 사회적 관계과 공동체에 대한 심층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마련

사업시기 2025년 4월~11월

대상 생애사 구술 희망 한센인(정착마을, 재가, 생활시설 등)

내용 한센인의 생애 구술 기록화, 책 100부 제작

노년 생활플러스교육

건강 위험 및 낙상 예방 교육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를 지원하며, 사회 적응력 강화와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시기 2025년 8월~11월

대상 교육을 희망하는 정착마을 1개소

내용 건강증진, 낙상예방, IT 기기 생활 활용 교육(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 등), 공예 놀이, 요리 등

한센인 합동결혼식

결혼식을 통해 정신적 안정감 및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며, 한센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회 제공



사업시기 2025년 10월

대상 전국 한센인 중 희망자 4쌍 내외

내용 예복, 헤어 및 메이크업, 야외촬영, 호텔 1박 등

대중매체 모니터링

한센인(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편견 해소를 통한 인식개선 기회 제공



사업시기 연중 실시

대상 대중매체(TV방송, 라디오, 신문 등), 종교 단체 등

내용 모니터링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 정확한 정보로 수정

한센 가족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안내

1 일본 한센 가족들에 대한 보상 판결

- 일본 정부는 과거 일제강점기하 소록도에 강제격리 · 노동을 당한 한센피해자들에게 일본 한센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 있음
- 이후 한센인 가족들이 일본 구마모토 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상청구소송 또한 2019. 6. 28. 승소 판결하였고, 이에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취지에 따라 2019. 11. 15. 한센병원환자가족보상법을 제정하여 한센인 가족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 격리 정책으로 인한 한센 가족 피해를 인정하고 사죄 · 반성을 표하면서, 한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그 명예 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센가족보상법 제정

2 보상 청구의 내용

- 보상금은 친자, 배우자 180만엔, 형제자매 130만엔 등
- 청구시한은 2029. 11. 21.까지(한시법)

3 보상 대상

- 가족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하 청구자)는 일제강점기하(1945. 8. 15.)에 한센병이 발병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이하 원환자)의 가족
- 대상자는 1945. 8. 15.이전 출생자로서 생존하고, 한센병 발병여부 불문(한센인, 비한센인 여부 불문)
- 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혼인일이 1945. 8. 15. 이전이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
- 원환자는 1945. 8. 15.이전 발병자로서 소록도 입소 및 사망 여부 불문
- 원환자가 일본으로부터 소록도 보상을 받은 경우도 가능(대상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

4 청구시 필요 서류(예시)

❶ 원환자 일제하 한센병 발병사실 증명서류
- 한센등록(관리)카드, 한센사업기록표, 나병력자 관리카드, 소록도 입소 증명서, 교적부, 세례명부, 소록도 보상결정문 등

❷ 대상자가 원환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일제 또는 해방후 구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❸ 대상자가 1945. 8. 15. 이전 출생자로 생존한 사실
- 주민등록 초본

❹ 대상자 은행계좌 사본

❺ 기타 입증서류

5 안내 및 문의

- 현재 한국 변호사들은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을 구성(단장 조영선 변호사)하여 일본 변호단과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음
- 2025. 3. 17. 기준 152명(1차 62명, 2차 63명, 3차 14명, 4차 1명, 5차 3명, 6차 5명, 7차 4명)의 서류를 일본에 송부하였고, 101명이 보상 결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보상 심의 중임
- 한센인 가족 피해보상은 한센인과 그 가족들이 당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보상임
- 청구인이 고령자이므로 신속하게 서류 준비 필요(청구인은 일본 정부에 서류를 접수하는 날 기준으로 생존해야 함)

문의사항	한국한센총연합회
전 화	1566-2339 / 팩스 : 1566-2032

제42차 울산·경남지부 대의원정기총회 성료



총연합회 산하 울산·경남지부(지부장 이상용)는 3월 17일 지부 사무실에서 '제42차 대의원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울산·경남지부 대의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보고를 시작으로, 이상용 지부장의 인사말이 진행됐다. 이어 전차 회의록 낭독과 감사보고가 이루어졌으며, 2024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승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총연합회 이사 2인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기타 토의사항을 논의한 후 폐회선언을 끝으로 총회를 마무리했다.

이상용 지부장은 "올 한 해도 한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2025년 제1회 이사회 개최



한국한센복지협회(회장 이영찬)는 2025년 2월 21일(금) 11시 컨퍼런스 하우스달개비에서 제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재적 임원 13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으며,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2024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규정 일부 개정(안), 사무총장 임명 동의(안) 등 안건을 승인했다.

필리핀 한센인 · 극빈층 가정 지원 및 한센마을 교회 헌당

한국IDEA협회(대표회장 정상권)는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깔라오칸시와 일로일로시를 반문해 한센인과 극빈층 가정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와 한센마을 교회 헌당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상권 대표회장을 비롯해 이용철 목사(북방선교회장), 양내권 목사(평남노회 부노회장), 김진철 목사(북방선교회), 윤영민 목사(대한교회), 김창길 집사(대한교회) 등이 함께했다.



▲ 깔라오칸시 글로리에따 공원 체육관에서 진행된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모습

먼저 깔라오칸시 글로리에따 공원 체육관과 신석교회에서 열린 '사랑의 쌀 나눔' 행사에는 500여 명의 한센인과 지역 극빈층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어 일로일로시 웨스터비사야 한센요양병원 인근 한센마을에서는 새롭게 건축된 '산타바바라 대한교회'의 헌당 감사예배가 열렸으며, 지역 주민 150여 명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다.



▲ 일로일로시 산타바바라 대한교회 헌당식에서 특별 찬양을 하고 있는 지역 한센인 성도들

정상권 대표회장은 “올해로 필리핀을 방문한 지 20년이 되었다. 매년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총회와 후원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그동안 6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그 학생들이 목회자, 교사, 약사, 공무원 등으로 성장해 경제적 자립과 인권 회복을 이루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후원자들의 사랑으로 가능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한 후, 준비한 쌀과 생필품, 선물 등을 전달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만들기 체험·전통 놀이 프로그램 진행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센터장 송정하)는 어르신들의 즐겁고 활기찬 일상을 위해 실생활에 유용한 만들기 체험과 전통놀이 프로그램일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 휴대용 돋보기 만들기 |





센터는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휴대용 돋보기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어르신들은 개인별로 제공된 키트를 활용해 아크릴 돋보기에 자개 조각을 배치하고, 하비 자개 광택 코팅제를 발라 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돋보기 전체를 코팅제로 마감하고 전조시킨 후, 상단의 구멍에 핸드폰 고리줄을 연결해 실용적인 목걸이형 돋보기를 완성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직접만든 돋보기를 목에 걸고 다니면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너무 좋다.”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 윷놀이 프로그램 |







이어, 정월대보름을 맞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윷놀이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2층 로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따뜻한 추억을 만드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윷놀이 대결이 펼쳐지는 동안 어르신들은 서로 응원하며 웃음꽃을 피웠고, 직원들도 한마음으로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 후에는 피자를 함께 나누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도 이어져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센터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실용적인 만들기 체험과 전통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녹슬지 않는 첫사랑의 추억

박우택(서울·중부지부장)

아득히 먼
그때는 우리 모두 이팔청춘이었네
그리움과 꿈도 많았네

단발머리 그 소녀는
방긋 웃으며 내게 다가왔네

용기 없는 못난이는
마음만 설렜네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 한 채
들킬세라 숨겨온 순정

꿈이 아닌 현실에 행복했었네
번개처럼 지나간 청춘이었건만
녹슬지 않은 첫사랑의 추억은 영원하네

할머니가 되었을 그녀에게
미안하다 사랑했었다 말해주고 싶네



한센인의 눈물 어린 발자취길, 거기서 만난 사람들

순천역~벌교 약 6시간 도보여행기… 사유하고 존재하기 위한 걷기

글. 오문수

"한센인 르포소설을 쓰던 중 한센인들이 걸어왔던 길을 따라 걸으며 그들의 애환을 체험하고자 쓴 글이다. 전남 순천역에서 벌교까지는 약 28~30킬로미터쯤 되는 거리이다."



▲순천 그린광장 모습

사람들은 왜 걸을까? 다비드 르 브르통(David Le Breton)은 그의 저서 <걷기 예찬>에서 걷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사유하고 존재하는 방식"으로 바라보았다. "걷기를 통해 인간은 자신과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철학적 심리적 사회적 의미를 지닌 행위"라고 했다.

맞는 얘기다. 어떤 이는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과의 일체감을 통해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하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걸으면서 외부 세계를 관찰하고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한편으론 치유 방식의 걷기도 있지만 순례자나 방랑자처럼 종교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 걷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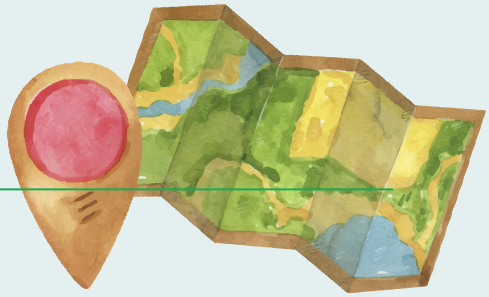
지난 22일(토) 오전 10시 50분, 순천역에서 내려 '네이버 길찾기' 프로그램을 따라 순천 동천을 건너 '오천 그린광장'을 가니 순천정원박람회장 못지않게 잘 꾸며진 야외정원이 나왔다. 날씨가 풀려서인지 가족들과 함께 온 어린이들이 반팔을 입고 뛰어놀고 있었다.

지도가 가리키는 대로 정원박물관 서문을 지나니 청암대학교가 나왔다. 봄바람에 휘날리는 플래카드에는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 글이 펄럭거렸다. 여기서부터는 보성벌교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봄은 꽃소식과 함께 오는 것 같다. 육교 밑 화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네이버 길찾기'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자동차도로를 따라 안내하기 때문에, 사람이 1미터도 안 되는 차도의 갓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 자동차가 바로 옆으로 쌩쌩 달려 위험하기도 하고, 동시에 공해도 심하다.

할 수 없어 도로 아래 농로를 따라 걸었다. 아직 농사철이 되지 않아서인지 작년 가을에 벤 벼 그루터기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계절은 여지없이 변하고 있었다. 농로 주변에는 민들레가 피고 야생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별량면 소재지를 찾아가는 이유가 있었다. <소록도의 구술 기억> 1권에 등장하는 김정호(가명)씨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는 취지다. 함경북도 여흥 출신인 김정호씨는 올해 나이 100세로 소록도에 생존해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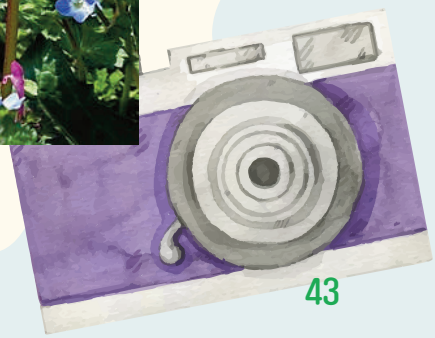
<소록도 구술기억>1권에는 김정호씨가 고향을 떠나 소록도를 찾아가는 여정과 유랑생활하면서 겪었던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그의 구술기록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이들의 애환을 이해하고자 일부 소개한다.

중학생이던 시절 한센병이 발병한 그는, 당시 주위 사람들이 보내는 불편한 시선을 피해 교복을 입은 채 집을 나섰다고 한다. 형님이 가르쳐준 '전라남도 다도해 소록도 '라는 주소만 가지고 목포에 도착했다.

목포경찰서에선 담당 순경이 “소록도는 힘드니까 여수 애양원이라는 데가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 거기 가면 훨씬 좋다.”라며 애양원을 찾아가라고 권했다. 애양원에 갔지만 “받아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단다. 실망해서 순천으로 돌아와 정류장에서 벌교행 표를 사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우연히 승하차를 돕는 빨간 모자 쓴 사람과 실랑이가 발생했다.



▲농로주변에는 야생화가 봄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야! 너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
"벌교행 표 끊었고 지금 벌교에 갈 겁니다."
"벌교로 가든지 말든지 그건 네 자유고. 차는 못 타니까, 걸어가라"

차표를 샀는데도 차를 못 타게 하는 게 분했던 그는 파출소를 찾아가 순경한테 억울한 사연을 말했다. 순천 정류장에 전화를 걸어 전후사정을 확인한 순경은 "손을 펴 봐라."라고 말했고 김씨의 오그라진 손가락을 확인한 순경은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할 수 없다. 걸어가라"라고 했단다. 억울한 마음으로 파출소를 나와, 밤 열 시경 벌교를 향해 걸어가던 김 씨는 노변에 가마니를 깔고 있던 할아버지를 만나 할아버지한테 사정했단다.

"할아버지, 나 오늘 밤에 같이 잘 수 없습니까?"
"아, 잘 수 있다. 그런데 어디 가느냐?"
"고흥에 우리 누나가 살고 있는데 자형 되는 사람이 철공소 일을 한대요."
"고흥에는 철공소가 없다. 나는 얻어묵고 댕기니까 빠삭하게 다 안다."

둘이 가마니를 깔고 잠들 무렵,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노인은 가마니를 들고 가버렸단다. 서러움에 울면서 남의 집 처마 밑에서 하룻밤을 지샌 김씨는 다음 날 아침 별량면 용두리 마을 뒷길에 기진해 쓰러져 있었다. 그때 김씨 옆을 지나던 한센인 환자 한 분이 울면서 말했단다.

"너, 소록도 가지야(가는 거지)? 나도 지금 병들어서 집에서 나오는 길이다. 내 고향이 전남 벌교인데 오늘 아침에 밥 먹고 걸어서 순천 가는 길이다. 소록도 가면 일이 심하고 일본 사람들이 먹을 것도 적게 주고 고생을 시키니까 가지 말고 날 따라서 가면 배도 고프지 않다. 그러니까 나 따라와라."

유랑자들에게도 계급이 있었단다. 맨 아래는 똘마니, 그 위로는 왕초, 대장은 수동무라고 불렀다. 김정호씨는 그날부터 걸인의 똘마니가 된 셈이다. 똘마니는 밥을 얻어오고 자질구레한 심부름까지 도맡았다.

그 걸인은 “순천군 별량면 척동이라는 동네 부잣집에 오늘 제사가 있으니 같이 가자”라고 해 따라갔다. 김정호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먼저 부잣집에 도착한 걸인이 밥 좀 달라고 부탁했다.

“학생이 하나 병들어 집을 나왔는데 사흘을 굶어가지고 밥도 못 묵고. 배고파 기진해 있으니 밥 좀 주세요.”
“아이고, 얼마나 배고프겠나. 학생 거기 앉아서 먹어. 적으면 더 줄 테니까. 부족하면 말해.”



그런 서글픈 생활을 하고서야 소록도에 왔다는 이야기였다.

걸으면서 본 별량…. 아직도 비옥한 토지가 많았다.

지난 22일 도보여행 때 느낀 점. 예전에 승용차를 이용해 별량을 지나다닐 때는 바닷가 마을이라 농토가 얼마 되지 않는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걸으면서 보니, 의외로 넓은 농지가 많다.

농수로에서 헤엄치며 물고기 잡던 오리 몇 마리가 인기척에 놀라 날아간다.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농부한테 별량면사무소 가는 길을 물어보니 가는 길을 가리키며 “거기까지 걸어가려고요?” 하며 놀란 표정이다.

별량면 사무소에 도착하니 정확하게 오후 두 시다. 점심때가 넘어 ‘욕보할매’ 집에 들렀더니 아직도 손님이 바글바글하다. 식당을 내게 소개했던 지인은 “식당 주인 할매의 나이가 86세이니 한센인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할매와 대화하고 싶어 할매를 찾자, 종업원한테서 “할매는 요즈음 나이가 많아서 은퇴했어요. 안 나와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맛있는 짱뚱어탕을 먹은 후 도로변 아래 농로를 따라 걷는데, 밭에 심어놓은 두릅에 비닐이 씌워져 있었다. 밭에서 일하는 할머니한테 이유를 물으니 “처음 심은 두릅 새싹에는 비닐을 씌워야 마르지 않아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화창한 봄날이라 날씨가 더워 잠바 자크를 풀고 걸었다. 바닷가에 나가 꼬막 채취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갈 길이 바쁘다. 이정표를 보니 벌교까지 4㎞ 남았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벌교가 보이는 휴게소에서 주스를 사러 가게에 들렀더니 주인이 말을 걸었다.

"나이도 드신 분 같은데 왜 배낭을 메고 걸어요?"
"차비가 없어서 순천역에서 걸어왔어요."
"예끼 여보쇼. 차비가 없어서 순천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하면 욕해요. 나이 든 것 같은데 추접스럽다고 그래요."
"하하하, 실은 옛날 한센인들이 걸었던 길을 체험해 보고 싶어서 벌교역까지 걷고 있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할 것이지"라며 화를 삭이는 듯한 가게 주인과 헤어져 별교시내에 접어들자 조정래의 '태백산맥문학관'이 보인다. 시내 곳곳에는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이 된 유적들이 남아있다.



▲벌교역 모습. 소록도를 가려는 한센인들이 벌교역에서 내려 소록도까지 걸었다고 한다.

때마침 벌교역에서 순천역으로 가는 경전선 위로 열차가 기적소리를 내며 벌교‘철다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벌교 ‘철다리’는 1930년 무렵 경전선 철도가 부설되면서 소설의 배경이었던 시절은 물론 1970년대 후반 국도 2호선 도로가 선형을 바꾸기 전까지만 해도 홍교 소화다리(부용교)와 함께 벌교 포구의 양안을 연결하는 세 개의 교량 가운데 하나였다. 소설에서는 염상구를 가장 인상적으로 각인시켜 준 곳이다.

일본 선원을 죽이고 도망쳤다가 해방과 함께 벌교로 돌아와 일본 놈을 처치한 독립투사로 변신한 염상구가 장터거리 주먹패와 주도권 쟁탈전에서 땅벌이라는 깡패 왕초와 철교 중앙에서 기차가 가까이 올 때까지 누가 더 오래 버티나 담력 시합한 철다리다.

벌교는 꼬막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시내 상가에는 꼬막과 해산물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 갈 길이 바쁜 나는 사진만 찍고 벌교역으로 갔다. 시간을 보니 오후 6시 20분이다. 역무원에게 순천으로 가는 기차를 물으니 오후 5시 반 기차는 금방 지나갔고 밤 9시가 넘어야 있다고 한다.

갑자기 장거리를 걸었더니 발바닥도 약간 아프고 오금도 아파 벌교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던 계획을 바꿔 집으로 되돌아가기로 했다. 불현듯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없어 구걸하다 들판에서 잠자던 한센인들의 처지가 생각나 마음을 다잡기로 했다.

그에 비하면 나는 충분한 상황이다. 집도 먹을 것도 모두 갖추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더 바랄 게 아니라 더 겸손해져야 하겠구나, 그렇게 다시 초심을 확인하게 하는 도보여행이었다.



신고자 보호

신분보장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징계·해고 등 불이익 처분 불가**
-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상회복 등 조치 요구 가능**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공개·누설 금지**

신변보호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

책임감면
- 신고 등과 관련된 신고자와 협조자의 **형벌·처분 및 징계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

신고자 보상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최대 30억)**

포상 |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최대 5억)**

신고 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신고 방법

온라인
-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 044-200-7971

신고 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명단은 '청렴포털 → 알리드립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참조
- 신고 취지 및 이유 기재, 부정수급자의 **부정 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과 함께 합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신고대상

정부지원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정부지원금 이란?
법령 등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부정청구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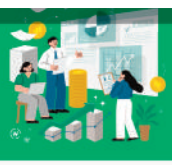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정부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신고 사례



1.과학·산업 분야
- 동일·유사한 개발(연구) 계획을 다수 기관에 제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중복수급
-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직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재하여 **연구수당**을 부정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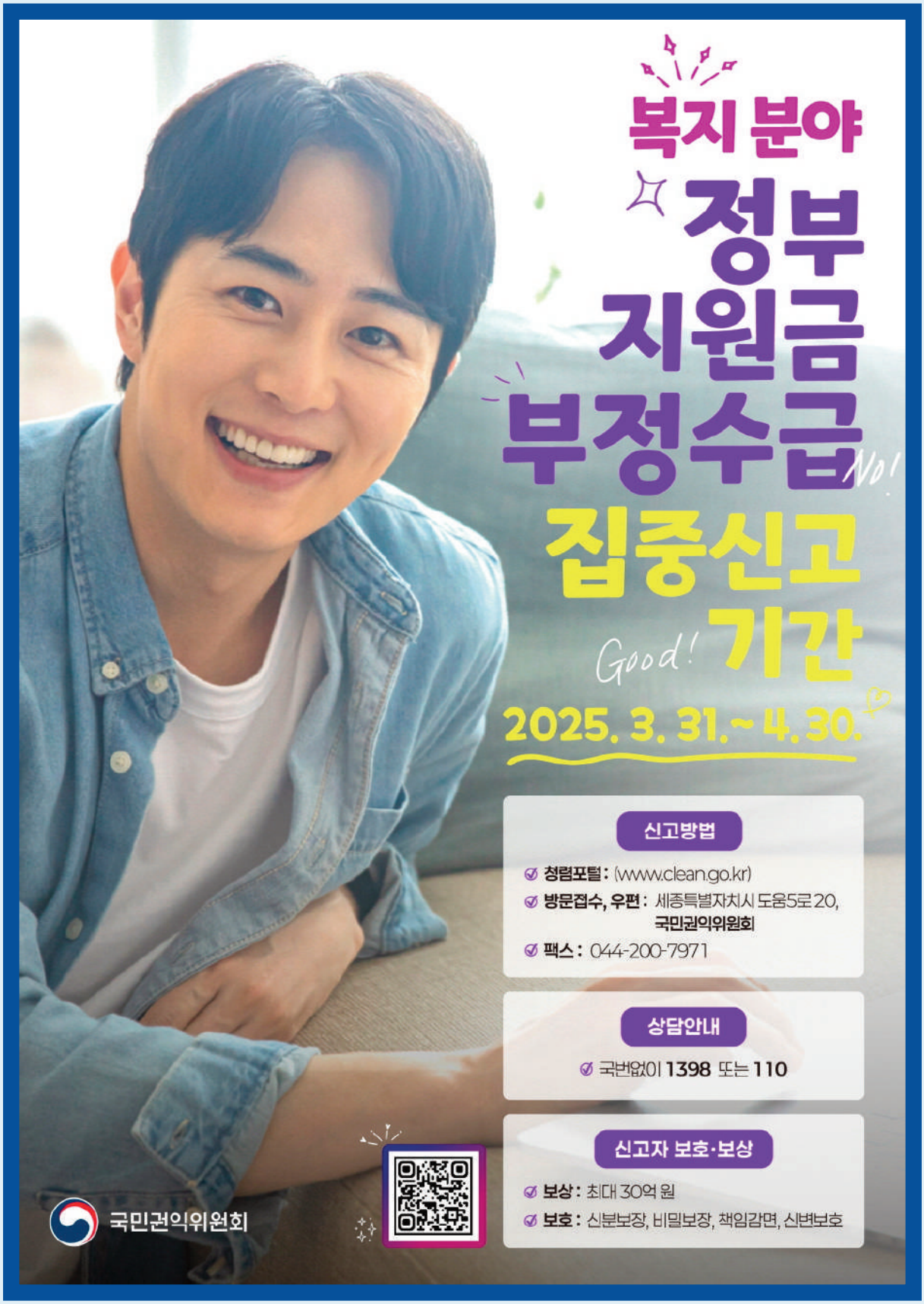
2.창업·고용 분야
- 재직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
- 하지도 않은 외주용역 결과물을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직원인건비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청년창업지원금** 부정수급

3.보건·의료 분야
- 의사와 간호사 면허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
- 진료한 환자를 실제보다 부풀려 등록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

4.교육 분야
- 허위 교사 등록, 급식비 및 특별활동비 목적외 사용 등으로 **유치원 보조금**을 부정수급
-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공연관람비, 가전제품 구입 등으로 **학교환경개선 사업비**를 목적외 사용

5.문화·체육 분야
- 유사한 행사·공연 내용을 다수 기관에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보조금**을 중복수급
- 지인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지역 체육행사 지원금**을 부정수급

6.복지 분야
- 타인 명의로 차량·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도 위장이혼, 사실혼관계 은폐 등 방법으로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수급


복지 분야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No!
집중신고
Good! 기간
2025. 3. 31.~4. 30.
신고방법
청렴포털 : (www.clean.go.kr)
방문접수,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 044-200-7971
상담안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신고자 보호·보상
보상 : 최대 30억 원
보호 : 신분보장, 비밀보장, 책임감면, 신변보호
국민권익위원회

당뇨와 비만, 감수치료로 관리합니다



글. 박신영 사진. 안용길
[출처 : 경희의료원보 프러포즈 2025년 봄호 VOL. 453 中]

이민승 교수(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내과(신장·내분비내과))

당뇨 환자가 인슐린을 주입하며 2년간 15kg이 늘었다.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부종도 심했다.
이민승 교수는 비만을 다스려야 당뇨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전문 진료분야

비만 및 대사증후군(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류마티스내과 질환(섬유근통, 류마티스 관절염), 비뇨기 질환(과민성 방광, 요실금)

■ 2형 당뇨의 주 원인은 '비만', 체중 관리에도 방법이 중요

"당뇨병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결핍으로 고혈당 또는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당뇨병은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2형 당뇨병은 중년층 이상 나이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당뇨병 전단계 또는 당뇨병을 진단받는 젊은 층이 늘어 당뇨와 합병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민승 교수는 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 '비만' 이라고 말한다.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혈액에 쌓여 소변으로 배출된다. 이로 인해 충분한 섭취에도 영양 부족 상태가 된다. 오랫동안 당뇨를 앓으면서 혈당을 관리하지 않아 삐쩍 마른 환자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면, 인슐린을 주입하기 시작한 환자들은 체중 증가를 보이기도 한다. 인슐린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 연료를 몸에 저장하기 때문이다.

"비만인은 체중을 증가시키는 식사와 생활습관을 갖고 있거나, 장내 미생물 균총이 비만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무작정 끼니를 굶고 운동하면 근손실이 발생하고, 몸이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기 위해 보상적 기전을 발동해 살이 더 찌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 체질을 고려한 맞춤형 한방 다이어트, 부작용은 낮추고 독소는 빼내

다이어트는 생활습관 개선, 약물 치료, 수술 치료로 나뉜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한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약물을 사용하는데, 두통, 메슥거림, 불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민승 교수는 한방 치료를 통해 효과적이고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할 수 있다고 전한다. 한방 다이어트는 각자의 체질을 고려한 맞춤 치료를 진행해 부작용 대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 외에 전체적인 신체 균형을 맞춰준다.

"한방에서는 비만으로 당뇨병이 생긴 환자들에게 식욕을 떨어뜨리고 몸의 대사와 순환을 돕는 한약을 처방해 부종을 제거하고 체중을 감량시킵니다. 반대로 마른 환자들에게는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한약을 처방해 만성 소모성 질환을 개선합니다. 또한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같은 합병증에 걸린 환자에게는 침, 전침, 약침 등의 치료로 증상을 호전시킵니다."



"한방에서는 비만으로 당뇨병이 생긴 환자들에게 식욕을 떨어뜨리고 몸의 대사와 순환을 돕는 한약을 처방해 부종을 제거하고 체중을 감량시킵니다."

■ 감수 치료로 인슐린 저항선 개선, 학술 및 임상적으로 효과 증명해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내과(신장·내분비내과)에서는 장내 노폐물의 집합체인 습담과 부종을 없애는 '감수 치료'를 진행한다. 이름 그대로 한약재 '감수'를 활용한 치료이다. 실제로 1년간 내원 환자를 관찰한 결과, 3개월간 체중의 7.2%, 6개 월간 9%, 10개월간 16.7% 감량 효과를 보였다. 또한 '감수'가 비만으로 인한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 균총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해 '감수 치료'의 학술적, 임상적 효과를 증명했다.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식단과 운동 관련 체중 관리 연구가 많았 지만, 생활요법만으로 체중 감량률이 낮고, 식욕 관련 호르몬이 기존 체중으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분비돼 요요현상이 불가피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2010년대부터 한방에서도 비만 관련 약물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승 교수는 비만 혹은 마른 비만으로 고민하는 당뇨 환자에게 한의학적 체중 관리를 권한다. 체중 감량을 위해 내원하는 환자 중 의지가 약하고 게을러서 다이어트에 실패했다고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만의 원인은 다양하기에, 이를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또한 잘못된 다이어트로 체중을 감량하면 요요현상이 심하게 발생해 장기적으로는 체중이 더 증가하게 된다. 비만으로 합병증이 생기기 전 혹은 합병증이 악화하기 전에 비만 전문가의 치료를 받으며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체중 감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해와 진실 Best 3



대체 당류(제로 칼로리)를 먹으면 괜찮다?

— 최근 아스파탐, 사카린, 스테비아, 알룰로스 등 열량이 거의 없으면서 설탕보다 단맛을 내는 대체 당류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대체 당류가 혈당 상승, 장내 미생물 균총의 교란, 암 발생 위험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또한 대체 당류를 섭취할수록 단맛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보상 심리가 생겨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므로 대체 당류는 건강에 이롭지 않다.



당뇨와 비만에는 많은 과일 섭취가 도움이 된다?

— 과당·포도당과 같은 단당류가 많이 포함된 과일을 다량 섭취하면 혈당과 지질수치 등이 상승해 대사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과일 주스 등에도 퓌레와 시럽 같은 액상과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과일은 건강하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원재료와 영양 정보에 관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이 좋다?

— 간헐적 단식은 금식 기간에 포도당 대신 지방이 분해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사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간헐적 단식이 체중을 감량한다는 확실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비만인을 대상으로 12개월간 하루 섭취 열량을 제한한 그룹과 동일한 열량을 하루 8시간 동안만 섭취한 간헐적 단식 그룹으로 비교한 연구에서 체중 변화와 혈압, 혈당, 지질 수치 등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혈당을 떨어트리는 약물을 복용하는 당뇨 환자는 주의해야 한다. 간헐적 단식으로 식사를 거르고 당뇨약을 먹으면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당뇨와 '헤어질 결심'

혈당 조절에 좋은 음식, 뭐가 있을까?

당뇨는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대사 질환이다.
신체 여러 기관에 악영향을 주고, 다양한 합병증까지 유발한다.

그래서 평소에 관리하고,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
특히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섭취하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혈당 조절에 좋은 음식, 어떤 게 있을까?



콩밥

콩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 탄수화물 흡수를 느리게 하고, 혈당 지수를 낮추며, 변비 예방, 항산화 효과, 폐경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단, 퓨린 함량이 높아 통풍 환자는 섭취 시 주의!



현미밥

현미밥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 속도 조절과 변비 예방, 심혈관 건강 개선, 해독 작용 등에 도움이 된다.
*평소 소화력이 약하다면 섭취를 피하거나 충분히 씹어야 함!



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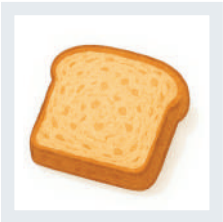
두부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고, 단백질 공급, 뼈 건강 유지, 다이어트, 소화 기능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
*조림 등으로 먹으면 나트륨 섭취가 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 안 됨!



샐러드

샐러드의 식이섬유가 탄수화물 흡수를 느리게 하고, 비타민과 미네랄 공급, 소화 촉진,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당분이 높은 드레싱 등으로 맛을 내면 샐러드를 먹은 효과 없음!



통밀빵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소화 속도를 늦추며, 비타민B와 미네랄 등을 공급한다.

*많이 먹으면 오히려 혈당 급등 가능성이 있음!



그릭요거트

그릭요거트는 그리스식 요구르트로 단백질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이 적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며, 장 건강 개선, 면역력 강화, 뼈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무가당 제품을 선택!

*토핑 없이 섭취하는 게 좋지만, 견과류나 그래놀라는 토핑으로 추천!



삶은 달걀

삶은 달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단백질, 비타민D 제공에도 도움된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고구마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며, 찌거나 삶으면 혈당 지수가 낮아진다. 또한 비타민A 공급,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된다.

*군고구마는 섭취 시 전분이 더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지수를 오히려 높일 수 있음!



바나나

덜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아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칼륨 공급으로 혈압 조절에도 도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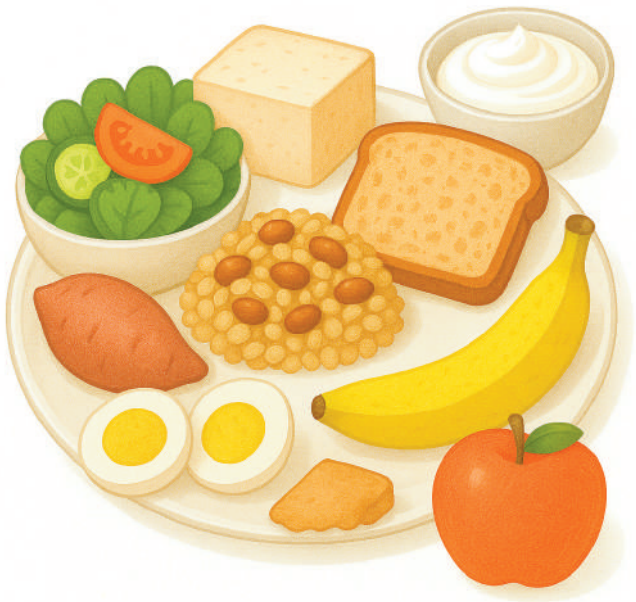
*잘 익어 당분이 높아진 바나나는 적정량만 아침식사 대용 등으로 섭취 권장!



사과

사과의 식이섬유가 탄수화물 흡수를 느리게 하고 혈당 급등을 방지하며, 비타민 C 공급과 항산화 효과에 도움이 된다.

*갈아서 주스를 만들면 섬유질이 손실되기 때문에 섭취 시 오히려 혈당 상승함!



2025.2.11.

질병관리청

2025 질병관리청 업무 추진계획

일상 속 국민 건강을 지키는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비·대응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 및
예측 고도화



검역체계 개편 및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확대



의료대응·비축,
방역인력 확보



사회 전(全) 분야
감염병 대비체계 강화

상시감염병 관리·퇴치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국가예방접종 로드맵 마련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 대응



맞춤형 상시감염병
퇴치 전략 실행



국내외 원헬스
거버넌스 선도



의료관련 감염 및
항생제 내성 관리

초고령사회 대응 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개편



국가건강조사
고도화



수요 맞춤형
희귀질환자 지원



손상·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 인프라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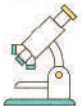


선제적 기후보건
평가·관리체계 구축

감염병·보건의료 연구를 주도하겠습니다.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임상현장 문제 해결
만성질환 연구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개방 확대



고위험 보건의료 연구
지원·관리 강화

글로벌 보건안보 및 공중보건을 선도하겠습니다.



WHO 국제보건규칙
합동외부평가 참여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협력 연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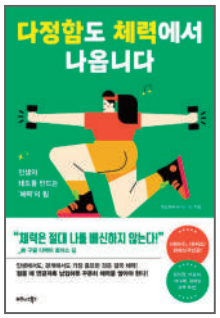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운영 활성화



WHO 협력센터
운영 활성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이책



다정함도 체력에서 나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지치지 않고 오래 일하기 위한 체력 안내서!
이제 젊을 때 연금저축 납입하듯 꾸준히 체력을 쌓아야 한다!

로이스 김은 구글 최초의 비원어민 디렉터로서 50세에 실리콘밸리로 떠나며 체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녀는 30년 넘게 하이퍼포머로 일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체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쌓아온 그녀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운동 팁을 제공한다.

하루 10분, 땀이 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조언으로, 체력을 키우면 일과 관계,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철학

내 삶의 고민을 철학자와 논쟁한다면?
인생 고민의 답을 찾아가는 철학 문답
니체, 헤겔, 마르크스, 칸트, 플라톤이 답하다

현대인들이 겪는 일상적인 고민에 대해 고대 철학자들과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철학을 소개한다. 소크라테스, 니체, 마르크스 등 유명 철학자들이 사랑, 성공, 삶의 자세, 미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현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며 철학이 삶의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플라톤과 현대 젊은이들이 연애의 의미를 두고 벌이는 토론은 고대와 현대의 가치관 차이를 드러낸다.

독자는 철학자들의 논쟁을 통해 스스로의 생각을 성찰하고, 철학이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된다. 이 책은 철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현대적이고 신선한 방식으로 철학을 다룬 입문서이다.

Quiz

한국한센총연합회와 똑똑한 두뇌 운동하고, 치매를 예방해요!

숨은단어찾기!
3글자 이상, 단어 3개 찾기

고	하	초	머	도
총	퐁	추	강	티
다	아	회	인	대
계	리	장	해	여
미	치	방	마	지

찾은 단어를 아래에 적어보세요!

❶ _____ _____ _____

❷ _____ _____ _____

❸ _____ _____ _____

계절 이름 맞추기
다음 중 맞는 것끼리 연결하세요!

봄 ●

여름 ●

가을 ●

겨울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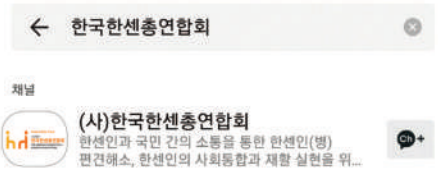
총연합회 카카오톡

+ 채널 추가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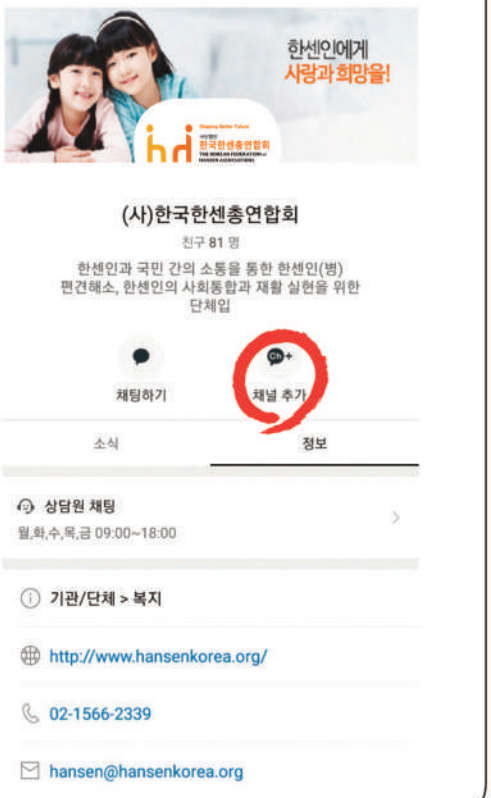
1.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한다.



2. 한국한센총연합회를 검색한다.



3.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소식 받아보기



언택트시대에도
당신의 온기로 채워지는
따뜻한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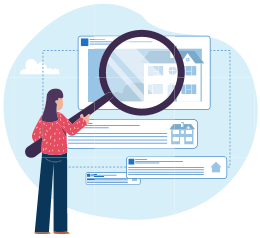
QR 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센 게시판

한센인(병) 관련 유물을 찾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기념관 건립 · 운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한센인 또는 한센병 관련 유물을 기증(서약)받고 있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	한센시설(병원) 생활유품 또는 기록	한센가족 후원 또는 봉사 관련 자료
	한센가족 작품 (문학, 미술, 음악, 사진 등)	기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한센인과 함께 만드는 종합정보소식지 '한센' 원고 모집 공고

▣ 응모 대상 : 제한 없음

▣ 응모 기간 : 상시 접수

▣ 원고 내용 및 분야

- 한센인 관련 미담, 에피소드, 봉사 수기
- 한센인 창작 또는 한센인 소재 문학 : 시, 소설, 수필 등 제한 없음
- 한센인의 생활현장, 민원 등 지역 소식
- 한센인 관련 정책 · 학술 · 역사 자료
- 한센인 관련 다양한 분야의 칼럼
- 기타 「한센」 게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

▣ 응모 방법

• 제출처 : 총연합회 「한센」 담당자

-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 팩스제출 : (02) 1566-2032
- 이메일제출 : hansen@hansenkorea.org

• 전화문의 : (02) 1566-2339



후원자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한센인의 사회적 수용을 촉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한센인에게 사랑과 희망을!

후원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회,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한센총연합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후원회장 김정남

후원계좌 국민은행 433401-01-330682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 본부 및 지부 주소

지부명	전화	팩스	주소
중앙회	1566-2339	1566-203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7, 2층
서울 · 중부지부	(02)532-6777	(02)532-90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20(방배동 202호)
부산지부	(051)245-8207	(051)245-820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4번길 3
인천지부	(032)529-0900	(032)522-085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 41 (간석동)
경기지부	(031)973-5329	(031)973-317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 802-1호
전북지부	(063)542-7822	(063)545-7820	전북 김제시 갈공길 21
광주 · 전남지부	(062)524-3485	(062)524-3484	광주광역시 북구 버들로 23 동방빌딩 3층
대구 · 경북지부	(054)971-8975	(054)977-8975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4길 5
울산 · 경남지부	(055)584-4333	(055)584-4332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방어산로 618

'한센' 편집 자문위원

위원장	우홍선(사무총장)
위원	박영립(법무법인 최앤박 대표변호사), 신재균(법무법인 서해 변호사), 옥춘광(작가)
기획	전희진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안식처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 이제 평화로운 삶을 누리십시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서는 고령한센인을 위한 노인 친화적 환경의
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네트워크로 고령한센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공감을 포괄할 수 있는
전인적 관점의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 사례관리
- 인권개선운동
- 재활·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교류 활성화
- 지역사회 기여 실천
- 보편적 협력기관 확대
- 긍정적 환경마련

노후생활 안전보장
- 1:1 개별 서비스
- 요양·보호·여가 지원
- 안정적 생활환경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
EVERGREEN WELFARE CENTER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116-15 | TEL : 043) 241-1300 / FAX : 043) 241-1302
E-mail : egwc1300@egwc.or.kr | 홈페이지 : http://www.egwc.or.kr



하나하나의 나눔이 모여
더 큰 베풂과 사랑이 됩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늘 여러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모든이에게 사랑과 소망을

HANSEN 한센

한국한센총연합회 질병관리청